

'자백' 거침없는 상승세...이준호X유재명 '확신' 통했다



tVN 토일드라마 '자백' (연출 김철규 윤현기/극본 임희철/제작 스튜디오 오드래곤 에이스팩토리)이 방송 2회만에 최고 시청률 6.2%(유료플랫

방송 2회만에 최고 시청률 6.2% 기록

건은 다시 다룰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법의 테두리에 가려진 진실을 좇는 자들을 그린 법정수사물로 방송 전부터 '시그널', '비밀의 숲'을 이을 tVN표 웰메이드 장르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제작발표회 당시 이준호가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 좋았다. 이야기에 매료됐다"고 말하는가 하면, 유재명이 "비밀의 숲"을 이을 웰메이드 작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호연장담해 기대감을 고조시킨 바 있다.

지난 23일 베일을 벗은 '자백'은 뜨거운 호평 속에 가파른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리며, 이준호-유재명의 비중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에 '자백'이 첫 방송부터 입소문을 제대로 탄 원동력을 살펴본다.

● 미스터리+반전 다 되는 촘촘 스토리

'자백'은 5년 차로 벌어진 두 살 인사건을 조명하며 강렬하게 포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최도현(이준호

분)과 기준호(유재명 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얽히고 설킨 관계가 흥미를 유발했다. 또한 진여사(남기에 분)-한종구(류경수 분)-황비서(최대훈 분) 등 미스터리한 인물들과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의문부호들은 시청자들의 추리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적재적소에 배치된 반전들은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점수를 선사하고 있다. 이처럼 잘 짜여진 스토리에 시청자들은 '오랜만에 볼 만한 장르물이 나타났다'며 열광하고 있다.

● 섬세한 품은 김철규표 장르물의 위업!

김철규 감독이 만드니 장르물도 남달랐다. 김철규 감독은 전작 '마더'를 통해 영화 같은 영상미와 섬세한 감성을 뽐낸 바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장르물의 특성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다. 김철규 감독은 잔인한 살인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고 간접보사만으로 폭발적인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일례로 으스

한 골목길을 걷는 피해자를 부감으로 촬영해 위압감을 강조한다거나, 마치 감시자의 시선처럼 인물을 번갈아서 촬영한 구도는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스토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눈 풀릴 틈 없는 흡입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 이준호-유재명부터 류경수까지 구멍 없는 연기력

배우들의 연기 열전 역시 일품이다. 이준호는 신뢰감을 주는 음성과 냉철한 눈빛, 깔끔한 대사전달력을 뽐내며 변호사 최도현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기준호' 역의 유재명 역시 시청자들을 집중시키는 목직인 아우라로 극에 무게감을 더한다. 특히 이준호와 유재명이 충돌하는 장면에서는 슬막하는 텐션이 만들어지며, 시청자들이 두 남자의 투쟁을 학수고대하게 무게감을 더한다. 또한 신현빈(하유리 역)-남기에의 유연한 연기는 긴장감 넘치는 극 전개 속에서 오아시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류경수는 신인배우답지 않은 폭발적인 연기로 루키의 탄생을 알렸다. 이처럼 주조연을 막론한 탄탄한 연기가

극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이끌고 있다.

● 궁극적 유발하는 절묘한 엔딩

'자백'은 단 2회만에 '엔딩맛집'의 타이틀도 얻었다. 회는 택시를 타고 가던 도현이 덤프트럭에 치이는 충격적인 모습과 함께 극이 종료돼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이에 방송 종료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절마 1회만에 남주가 죽은 거냐'며 감탄을 쏟아내며 필적하며 뜨거운 화제를 이끌어냈다. 2회는 도현이 5년 전 자신의 변론을 뒤집는 조강수를 던지는 모습이 엔딩을 차지했고, 시청자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던 반전에 경악하며 다음 회를 향한 궁극음을 폭발시키고 있다.

이에 '자백' 측은 "엔딩맛집"이라는 별명은 감사할 따름이다. 임희철 작가의 절묘한 엔딩집과 김철규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더해져 '엔딩맛집'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좋은 엔딩과 기어에 오래 남을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tVN 토일드라마 '자백'은 매주 토, 일 밤 9시에 방송된다.

4월 가요계, 엑소 첸·볼빨간사춘기 등 음원강자 귀환

4월 가요계는 말 그대로 '가요대전'이 따로 없다.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트와이스와 같은 인기 그룹들이 줄줄이 컴백하는 것은 물론 음원 차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줬던 '음원 강자'들이 대거 귀환하기 때문이다. 데뷔 후 꽃길 행보를 펼치고 있는 아이즈원부터 글로벌 팬덤을 지닌 엑소 첸, 무려 8연속 히트를 성공시킨 볼빨간사춘기까지,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트와이스에 맞서는 음원 강자들의 컴백에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 아이즈원, 新 음원 차트 강자의 저력 보여줄까

아이즈원은 4월 1일 새 미니앨범 '하트아이즈(HEART*IZ)'로 돌아온다. 이들은 연보라색을 의미하는 타이틀곡 '비올레타'로 이전과는 다른 신비로운 콘셉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신보에는 아이즈원 멤버 김민주의 혼자 히토미가 작사에 참여한 '리얼리 라이크 유', 워너원 출신 이대휘가 작사·작곡을 맡은 '에어플레이너'가 포함돼 있어 수많은 음악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데뷔 앨범 타이틀곡 '리베

앙 로즈'로 음원 차트를 휩쓸었던 아이즈원이 이번에도 가요계 핫루키다운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엑소 첸, 봄 감성 저격 나선다

엑소 첸은 4월 1일 첫 번째 미니앨범 '사월, 그리고 꽃 (April, and a flower)'을 선보인다. 첸은 발라드 장르의 타이틀곡 '사월이 지나면 우리 헤어져요 (Beautiful goodbye)'로 아련한 분위기 속 애절 보이스를 녹여내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OST 최고의



행운', '태양의 후예' OST 'Everytime', '백일의 낭군님' OST '벚꽃연가' 등을 히트시킨 바 있는 첸이기에 그의 솔로 변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볼빨간사춘기, 7연속 히트 노리는 음원 차트 절대 강자

음원 차트 절대 강자로 꼽히는 볼빨간사춘기는 4월 2일 새 미니앨범 '사춘기집' 꽃길운으로 컴백한다. 타이틀곡은 볼빨간사춘기 특유의 귀엽고 발랄한 멜로디와 가사가 인상적인 '나만, 봄'으로, 버스커버 스커의 '벚꽃엔딩'을 잇는 '봄 연금술'의 탄생을 예고해 더욱이 주목 받고 있다. 또한, '우주를 춤춰', '좋다고 말해', '남이 될 수 있을까', '썸 탈까야', '첫사랑', '여행'까지 총 6곡을 음원 차트 1위에 올린 볼빨간사춘기가 이번 앨범을 통해 7연속 히트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21만· 흥행 1위" '어스', 역대 외화 호러 최고오프닝



외화 '어스(Us)'가 개봉 첫날 21만 명을 동원하면서, 국내 흥행 1

위 자리에 올라섰다. 이는 역대 외화 호러 영화 사상 최고 오프닝 기록이다.

2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어스'는 지난 27일 하루 1,084개 스크린에서 21만 3,661명의 관객을 동원해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날 '눈'은 20만 4,576명을 끌어들여 누적관객수 197만 8,044명으로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고, '캡틴 마블'은 4만 6,495명을 불러모으며 누적관객수 534만 1,983명으로 3위를 했다.

'어스'와 같은 날 개봉한 장난스런 키스'는 3만 698명을 동원하

며 박스오피스 4위로 출발했고 신작 '덱보' 역시 2만 4,836명을 끌어들여 흥행 순위 5위를 나타냈다.

북미에서 '캡틴 마블'을 꺾고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어스'는 국내 개봉 전, 영진위 통합전산망에서 사전 예매량 4만 6,853장을 기록하며 심상치 않은 흥행 기세를 드러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호러 영화 최고 흥행작 '곤지암'의 동시기 사전 예매량 약 1만 3,600장을 뛰어넘은 것.

또, 2년 전 '갯 아웃'으로 국내 관객들을 사로잡은 조던 필 감독의 차기작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한껏 상승했다.

'어스'는 개봉 첫날부터 21만 명 이상을 동원해, 한국 영화 '눈'을 제치면서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특히 역대 외화 호러 영화 사상 최고 오프닝을 기록하며 경이로운 흥행 신드롬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3월 말 동시기 개봉했던 '곤지암'(19만 8,365명)을 넘어섰고, '곡성'을 잇는 역대급 오프닝 스퀴어를 달성했다. 여기에 조던 필 감독의 전작 '갯 아웃'의 오프닝 스퀴어(9만 2,124명)를 2배 이상 훌쩍 뛰어넘었다.

배급사 UPI에 따르면, 전세계 39개국에서도 '갯 아웃'을 능가하는 흥행 스퀴어를 기록하고 제작비(227억 원) 4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등 세계적인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사전 제작 드라마 '이몽', 5월 첫방송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드라마 '이몽'이 불꽃 같은 민족 스토리와 100% 사전 제작으로 고품질리티 첩보 시대극의 탄생을 예고한다.

오는 5월 방송 예정인 MBC '이몽' (연출 윤상호/극본 조규원/제작 이몽 스튜디오 문화진흥회사)은 일제 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일본인 손에 자란 조선인 의사 이영진과 무장한 비밀결사 의열단장 김원봉이 펼치는 첩보 액션 드라마다.

지난 11월 첫 촬영을 시작한 '이몽'은 방영 전까지 모든 촬영을 마무리하는 100% 사전 제작 드라마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조규원 작가의 탄탄한 대본을 기반으로 충만한 촬영 일정과 윤상호 감독의 빈틈없는 연출력이 더해진

스펙터클한 영상미로 시청자들의 두 눈을 단숨에 사로잡을 것을 예고한다.

그런 가운데 '이몽'은 역동적인 영상미와 목직인 울림이 더해진 티저 영상을 공개, 단 30초만에 보는 이들의 심장을 사로잡은 바 이에 더욱 높은 완성도를 자랑할 고품질리티 첩보 시대극의 탄생을 예고했다. 특히 tVN '미스터 션샤인'과 '백일의 낭군님'에서 최근 종영한 JTBC '눈이 부시게'까지, 사전 제작 드라마가 연일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에 사전 제작의 이점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

이에 오는 5월 인방극장에 찾아올 MBC '이몽'이 100% 사전 제작 드라마의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의 순세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음력 2월 23일)



▶**경조** 결단성이 필요할 때, 박력 있는 추진력이 앞날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상하를 포용력 있게 대하고 덕을 베풀 때 가정과 직장에서 찬사 들릴 듯. □, ▽, ≡ 성씨 생각은 항상 건전한 쪽으로 하라.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겠다.



▶**애제** 노력보다 득이 적으니 심신이 피로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인내하면 찬사 받을 수 있다. 문서관계는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음을 알라. 2, 7, 11월생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 것. 피해를 볼 수 있다.



▶**홍행** 애제 아무리 혼자서 공을 세웠어도 주위에 보조가 없으면 무용지물. 훌륭한 스승 밑에는 분명히 유용한 제자가 있게 마련임을 알라. 애정 문제는 결단이 요구되니 3, 8, 11월생 둘 다 잡으려 말고 하나로 결정할 것.



▶**경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만이 화를 면할 수 있다. 감정대로만 처신한다면 모든 일이 엉키는 법. 1, 2, 5, 7월생 본인의 일이 아니면 참견하거나 신경 쓰지 말고 앞길 추של라. ▽, ○, 天 성씨 복록 일 늦어지겠다.



▶**홍행**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었던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해 보아야 진실을 알 수 있고 중요성도 알게 된다. 3, 7, 8월생 잔과 버리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될 듯. □, ○, 天 성씨 하는 일 힘이 든다.



▶**경조** 작은 일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고 빨리 잊을수록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 4, 7, 11월생 일하는 사람과 하는 일이 일치 안 되니 생업이 힘이 든다. 그러나 인내로 꾸준히 정진하면 뜻을 알고 도우며 따를 사람 있겠다.



▶**경조**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처럼 남의 사람을 마음대로 하게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마음 속 깊이 자문자답해 보라. 3, 6, 10월생 상대는 갈등을 느끼며 그대를 보고 있다. 허공 속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라.



▶**경조** 인생은 좌절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다. 눈물도 많고 인정도 많으나 자신은 베풀어도 인덕이 없어 마음고생이 심하다.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면서 슬픔은 혼자서 달래는구나. ▽, 天, ○ 성씨 마음 편히 가질 것.



▶**홍행** 좋은 일들이 눈앞에 나타난다 해도 용기가 없으면 이를 수 없다. 3, 5, 9월생 마음으로는 세상 모든 것이 내 것 같으나 꿈 같은 일. □, ○, 天 성씨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마음을 다스려라.



▶**경조**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오늘 휴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 자기 것이 아니면 만지지도 보지도 마라. □, 天, 天 성씨 구설에 휘말릴 수다. 논쟁을 지나치게 쓰면 신병도 우려되니 개별이 언행 조심. 복, 동쪽 사람 믿지 마라.



▶**경조** 사람을 사귀는 데 조건을 세우지 마라. ▽, 天, ○ 성씨 처음에는 모르고 대하다가 그대의 속마음을 알고는 멀리 떠날 수 있다. 결정된 것은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변동해서는 안 된다. 1, 3, 9월생 소, 용, 양띠와 함께 할 때 길하겠다.



▶**경조**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다. 3, 6, 9월생 눈을 뜨고 있어도 시야가 없는 것 같고 입을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력이 부족하게 된다. □, 天, ○ 성씨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 결단할 때 좋은 성과 있겠다.